

카를레스 라마와 소피아 카브루하

네 손으로 연주하는 피아노곡

카를레스 라마(Carles Lama)와 소피아 카브루하(Sofia Cabruja)는 클래식 음악계에서 예술 인재의 본보기이며 유럽에서 가장 명성 있는 피아노 듀오 중 하나입니다.

청중의 감동과 눈물을 이끌어내는 비범한 능력을 갖춘 두 음악가로서 대중들과 비평가들 모두에게서 갈채를 받는 이 듀오는 또한 화려한 동시 연주와 매우 드문 상호 이해를 보여줍니다. 카를레스와 소피아는 훌륭한 기법, 열정, 비할 데 없는 음질과 무한한 우아함으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모든 클래식 음악 장르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카를레스와 소피아는 네 손으로 연주하는 연주곡목의 해석에서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듀오는 화성에 대한 깊은 의식과 함께 다양한 오케스트라 음색, 매우 자연스러운 악구 악절 구분법, 노래하는 듯한 인상적인 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연주를 시작한 1987년 이후, 카를레스와 소피아는 국제적인 이력 덕분에 카네기홀(뉴욕), 콜라락 기념관(베오그라드), 솔리스 극장(몬테비데오) 등 유명한 장소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파리, 런던, 마드리드, 브뤼셀, 로마, 바르셀로나, 밀라노, 프라하, 베오그라드, 도쿄, 쿠알라룸푸르, 상하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세계의 중심지에서 네 손으로 연주하는 정기 독주회를 열거나 런던 시티 체임버 오케스트라, Orquestra Simfònica de Sao Paulo, Orchestre de Chambre du Namurois, 도쿄 체임버 오케스트라, 말레이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및 헤르미티지 스테이트 오케스트라 등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였습니다.

두 음악가는 모두 지로나(스페인 카탈로니아)에서 태어났으며 어렸을 때부터 비범한 음악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바르셀로나 음악원(Barcelona Conservatory)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그들은 먼저 파리의 에콜 노르말(Ecole Normale)에서, 그 후 미국 하트퍼드 대학교(University of Hartford)의 하트 음악대학(Hartt School of Music)에서 음악적 훈련을 계속하였습니다. 이 듀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 두 명의 교수는 러시아 피아니스트 니나 스베틀라노바(Nina Svetlanova)와 브라질 피아니스트 루이스 데 모우라 카스트로(Luiz de Moura Castro)입니다.

그들의 연주곡목은 바흐에서부터 21세기에 이르며, 가장 훌륭하고 어려운 오케스트라용 편곡과 함께 네 손으로 연주하는 모든 주요 피아노곡을 포함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 듀오의 연주를 듣고 이들만을 위한 작품을 만든 존 카마이클(John Carmichael)이나 다니엘 바솜바(Daniel Basomba)와 같은 많은 현대 작곡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카를레스와 소피아는 슈베르트의 F단조 환상곡, 브람스의 왈츠 39번, 라흐마니노프의 조곡 11번 또는 호주 작곡가 존 카마이클이 작곡한 네 손으로 연주하는 작품 전곡 등을 연주한 KNS 클래식 레이블의 각광 받는 레코딩 아티스트입니다.

카를레스와 소피아는 또한 클래식 음악과 클래식 예술가들을 널리 알리고 장려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TV 프로젝트와 함께 여러 차례의 콘서트와 축제를 만들고 발전시켰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의 일환으로 그들은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서 마스터 클래스 강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카를레스와 소피아는 언제나 사회적 공헌에 전념하였습니다. 2001년 이들은 인도주의적 노력을 인정받아 왕실의 마가리타 드 부르봉(Margarita de Borbón)으로부터 UNICEF의 명예상을 수여 받았습니다.